

2025
고2 독서
미래엔

2025 고2 독서 미래엔 3(4)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에서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글의 내용 중 ‘가시’, ‘잃어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등과 같은 특정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나 ‘로트레크의 일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와 더불어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으레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없이 따다가 아무 데나 던져 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 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듯하게 느낄 무렵, 소음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

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뿔뿔히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시 박힌 상처가 별걸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②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④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 전에 잃어버린 탱자 한 알을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 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어린 시절을 탱자가 흔했던 고향 마을에서 보냈다.
- ② ‘책가방’, ‘술잔’, ‘장바구니’는 글쓴이가 학창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 ③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은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 ④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시’는 육체적인 장애, 가난한 환경, 내성적인 성격 등 다양하다.
- ⑤ 글쓴이는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한 것보다는 강하고 재능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가시’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 ② ‘가시’는 우리를 오래도록 괴롭게 하고 삶을 혐오하게 만들 수도 있다.
- ③ ‘가시’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 ④ ‘가시’는 밖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⑤ ‘가시’는 사람에 따라서는 용모나 육체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불우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3. 윗글에서 로트레크의 일화를 통해 글쓰기가 전달하려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체적인 장애는 정신적인 장애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이 아니다.
- ② 로트레크는 삶을 비판한 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 ③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자신에게 절망과 시련을 겪게 해야 한다.
- ④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된다.
- ⑤ 로트레크의 한쪽 다리가 남들보다 약간 짧았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오늘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삶의 고통을 피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글쓰이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 ② ㉠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글쓰이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 ③ ㉠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기도 하다는 글쓰이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 ④ ㉡는 죽음을 앞둔 글쓰이의 처지를 ‘탱자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⑤ ㉡는 글쓰이에게 깨달음을 준 ‘탱자나무’에 대한 아련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글쓰이는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가시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
- ② 아린: ‘탱자 열매’는 ‘책가방’, ‘장바구니’ 등과는 달리 평화롭던 유년 시절을 상기시키는 소재로서 글쓰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해.
- ③ 지호: 글쓰이는 로트레크의 사례를 통해 넘치는 재능 속에서 삶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스스로 삶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효정: 날카로운 가시는 스스로를 겸허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마음에 와닿았어.
- ⑤ 승희: 어른이 되어가면서 힘겨운 일상이 지속되면서 글쓰이는 내면에서 자라나는 가시를 인식하게 된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네.

신유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에서는 글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본문 외에 단원에서 제시하는 다른 글과 연결 지어 묻는 문제, 내용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글의 내용 중 ‘가시’, ‘잃어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같은 특정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나 ‘로트레크의 일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와 더불어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으레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없이 따다가 아무 데나 던져 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 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겍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야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듯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

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집**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㉔**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뾰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시 박힌 상처가 별걸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㉔**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되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 전에 잃어버린 탱자 한 알을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 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6.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글쓴이가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② ㉒을 계기로 글쓴이는 ‘가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게 되었군.
- ③ ㉓은 힘겨운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거운 책 가방’이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때와 연결해 볼 수 있겠군.
- ④ ㉔은 미처 인생의 소중함이나 고통의 깊이를 알기도 전에 성공하여 교만해지기 쉽겠군.
- ⑤ ㉔은 글쓴이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순행적 구성으로 글쓴이의 사고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사물을 열거하여 글쓴이가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얻은 삶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반되는 두 대상을 대조해 글쓴이가 느꼈던 감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8. 문맥상 ㉕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오래 신었던 양말에 구멍이 나다.
- ② 신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기사가 나다.
- ③ 사춘기가 된 아들의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
- ④ 그 기업에 드디어 취직자리가 나서 연락을 해 보았다.
- 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 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별걸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게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나)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 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라)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마)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레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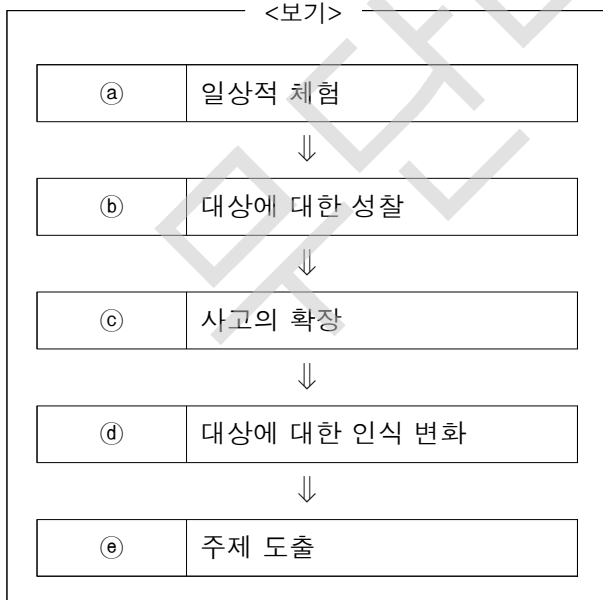
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는 오래 전에 잃어버린 탱자 한 알을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 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 ③ ㉓: 나를 키워온 크고 작은 ‘가시’들을 제시하여 ‘가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겠군.
- ④ ㉔: 날카로운 ‘가시’ 덕분에 삶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배우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강조해야겠군.
- ⑤ ㉕: 내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제시하며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글을 마무리해야겠군.

9.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작가는 미각, 시각, 후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고향의 느낌을 떠올리고 있다.
- ② (가)에서 작가가 품었던 의문이 (나)에서 해소되어, 관심이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③ (다)에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다)에서 작가가 발견한 ‘가시’의 의미를 (라)에서 예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 작가는 (다), (라)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재인식하며 삶의 위로를 받고 있다.

10. 윗글의 창작 과정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작가가 고려했을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뾰족한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글을 시작해야겠군.
- ② ㉒: 아버지를 통해 ‘가시’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후, ‘가시’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야겠군.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글쓰는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①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으레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책가방’은 글쓰이의 학창 시절을, ‘술잔’은 성인이 되었음을, ‘장바구니’는 결혼 후의 삶을 의미한다.

③ 어린 시절 가시에 찔린 경험을 통해 글쓰이는 가시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아버지께서 가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가르침을 주셨다.

④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2. 정답 ④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 댄다’고 하였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시는 용모, 육체적 장애, 가난한 환경 등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나 약점 등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②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다.

③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다고 하였다.

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3. 정답 ④

로트레크는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좀 짧은 신체 장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화가로서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쓰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① 로트레크는 다리가 불편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던 것은 맞지만 그의 일화를 통해 정신적인 장애가 더 큰 어려움임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로트레크는 다리 때문에 비관한 것은 맞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림을 그려 가치있는 예술품을 남길 수 있었다.

③ 가시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로트레크는 사고로 인해 다리는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신에게 절망과 시련을 겪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로트레크의 한쪽 다리가 짧았던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오늘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4. 정답 ③

㉠는 삶의 ‘가시’는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해 주며 그로 인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고, 겸허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기도 하다는 글쓰이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글쓰이는 삶의 고통을 피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②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 하는 글이 아니다.

④ ㉠는 가시로 인한 상처를 이겨 내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탱자나무’를 의미한다.

⑤ ‘탱자나무’가 글쓰이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맞지만 ‘탱자나무’에 대한 아련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5. 정답 ③

로트레크는 다른 사람보다 짧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로트레크의 사례를 통해 자신을 고통

스럽게 하는 대상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① 글쓴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 독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가시가 존재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② ‘탱자 열매’는 과거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재로, 학창 시절을 의미하는 ‘책가방’이나 어른이 된 시기를 의미하는 ‘장바구니’와는 다르게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뾰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이다.

⑤ 글쓴이는 어른이 되는 동안 속에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다.

6. 정답 ①

㉠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미각, 시각, 후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가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가시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③ ㉡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학창 시절의 ‘무거운 책가방’과 어른이 된 글쓴이의 ‘무거운 장바구니’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④ ㉢은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줄 ‘가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소중함이나 고통의 깊이를 알기도 전에 성공하여 교만해져 오히려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⑤ ㉣은 글쓴이에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로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준 존재이다.

7. 정답 ⑤

‘향긋한 탱자 열매’와 ‘무거운 책가방’, ‘돌멩이’ 등이 대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조를 통해 글쓴이의 감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① ‘뾰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아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에서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어 삶의 고통이 오히려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탱자 열매를 가지고 놀았던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 어른이 된 이후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가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③ ‘책가방’, ‘술잔’, ‘장바구니’ 등의 사물을 통해 글쓴이가 학창 시절부터 어른이 된 후, 결혼 후와 같이 살아온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누구나 유년기를 벗어나면 삶의 고통을 겪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⑤

㉢은 ‘생각, 기억 따위가 일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⑤가 가장 유사하다.

①은 ‘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은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는 ‘구하던 대상이 나타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9. 정답 ②

(가)에서 가시에 대해 작가가 품었던 가시에 대한 의문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해 해소된 것은 맞지만 관심이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가)의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제 속
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일반화하
고 있다.

④ (다)에서 가시(삶의 고통)가 있기에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라)의 로트레크의
예화를 통해 가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마)에서 작가는 (다), (라)를 통해 얻은 깨달음,
즉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
을 동시에 보여준 탱자나무를 떠올리며 삶의 고통
을 성숙의 밑거름으로 심으며 살아가다 보면 고통
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고 말하고 있
다.

10. 정답 ③

나를 키워 온 크고 작은 ‘가시’는 나를 성장시켜 준
삶의 고통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없다.

① 유년 시절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일상적 체험
을 회상하고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아버지를 통해 ‘가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알게
되고 ‘가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④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가시’가 있기에
삶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배우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어
‘가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⑤ 내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다는 사실을 제
시하여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말
자’는 이 글의 주제를 도출하고 글을 마무리하였다.